

20

26

Vol. 1
창간호



주소는
단순히 길을 찾는 숫자가 아니라,
멀리 떨어진 마음이
서로에게 닿을 수 있게 돕는
가장 다정한 이정표입니다.



(사)주소기반산업협회

Contents

2026 Vol. 1 창간호



축하합니다

04

나종민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장

06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07

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박덕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장

08

서정하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장

김대영 주소미래혁신포럼 의장·카이스트 교수

09

김학성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현준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회장



KABA, 길을 열다

12

주소산업의
튼튼한 뿌리가 되다

14

주소정보산업의
실체적 성장 기반을 다지다



KABA, 이정표를 세우다

18

정부

주소정보산업 국가통계가 알려주는
국가 주소 정책의 방향성

20

산업

주소정보 특허 동향을 통해 본
산업계 활용 현황

22

개인

데이터로 읽는 주소,
길을 묻고 답을 듣다

23

해외

주소정보, 세계를 잇는
또 하나의 K-브랜드



KABA, 미래를 읽다

26

한국 주소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진흥 제도의 필요성

28

주소정보와 AI의 융합으로
국가 디지털 미래를 열다

30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융합, 주소발전 방향

31

AI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전문가 '주소정보활용사'

32

공직자의 눈으로 본 주소,
그리고 그 너머의 가치

33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좌표,
주소정보가 여는 미래

34

주소 변경을 넘어 생활 인프라로
kt moving과 주소기반 산업의 동반성장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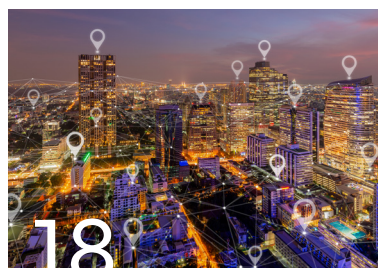
주소기반 재난·안전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여준
현장과 주소산업의 미래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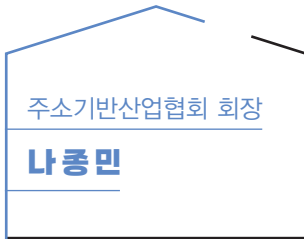
K-주소, 모빌리티 서비스의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

39

일상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주소정보 활용법



주소기반 산업의 미래, 소통과 혁신으로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소기반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해 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장 나종민입니다.

주소는 더 이상 단순한 위치 표시 수단이 아닌 디지털 행정, 스마트시티, 물류·유통, 재난안전, 공간정보 산업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공공·민간 영역의 활용 확대를 목표로 설립된 이후 제도 개선과 정책 제언, 산업 활성화, 회원사 간 협력 강화 등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 급속히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변화는 주소정보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소정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 생활 편의 증진에 직결 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주소기반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야로 주목받고 있으며, 협회의 역할과 책임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협회의 주요 활동과 회원 여러분의 성과를 보다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정책·기술·산업 동향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소통의 창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협회는 회원과 함께 호흡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공식 소통 매체로서 협회 소식지「주소」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주소정보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디지털 전환 시대,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회원사의
목소리를 담아낼 공식 소통 창구 「주소」를 창간합니다.

본 소식지는 협회의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현황을 전달하는 동시에 주소기반 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변화, 제도, 산업동향, 기술 혁신 사례를 폭넓게 담아낼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산업을 이끌어 가고 계신 회원사의 다양한 경험과 목소리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소기반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민간 활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하며, 현장의 요구가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제언은 협회의 가장 큰 자산이자 원동력입니다. 본 소식지가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린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협회 소식지 창간을 위해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협회를 신뢰하고 함께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주소기반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공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장 **이종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대한민국 주소 산업의 미래를 선도하는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소식지 창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간 협회의 기틀을 닦고 소식지 발간을 위해 힘써주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오늘날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주소가 찾아가기 위한 표식에 불과했다면, 이제 주소는 공간을 이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작동 시키는 정보입니다. 주소 정보는 물류 배송의 효율성과 신속성은 물론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드론 배송과 재난·안전 대응 체계 고도화에 이르기까지 미래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2021년 출범한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정보시설 점검, 주소기반산업 관련 시장 동향과 국가통계 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민관 협력과 소통을 이끄는 가교이자, 우리 기업들이 주소 기반의 산업 생태계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첫발을 내딛는 이 소식지가 주소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 제안, 민관 협력 사업, 산업 네트워크 구축과 같은 산업계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최신 기술과 정책을 활발히 공유하는 활발한 '지식의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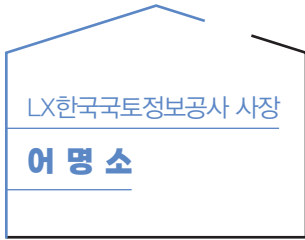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주소 정보를 국가의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이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사물 주소와 실내 주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과 연계된 주소 지능형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기업들의 새로운 서비스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소식지 창간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본 소식지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소기반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소식지가 정책과 현장을 잇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 주소기반산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소기반산업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주소기반 산업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계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가 2026년, 우리 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담아낼 소식지를 창간하게 된 것을 LX한국국토정보공사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지 창간은 '주소기반 산업 진흥'이라는 협회의 비전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소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의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있어,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를 뒷받침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가 바로 주소정보입니다. 이제 주소는 단순한 위치표시를 넘어, AI와 로봇이 세상을 인식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데이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단 기술은 정밀성과 실시간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궁극적으로 주소기반 산업을 확장하고, 혁신적인 신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그동안 주소정보의 활용 활성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기여하며, 산업을 이끌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창간되는 소식지는 이러한 협회의 노력을 집대성하고, 회원사 간의 성공 사례,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정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모든 회원사가 주소기반 신기술을 선도하며 상생 협력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소식지 발간을 기점으로, 협회가 더욱 단단한 결속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주소기반 혁신성장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 소식지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호 발간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한층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주소기반 산업의 발전과 미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뜻깊은 이정표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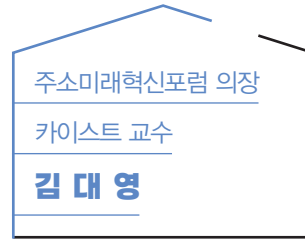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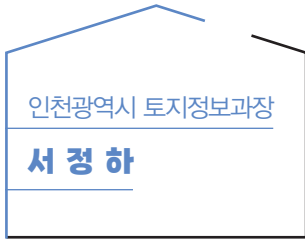
'근본이 바로 서야 길이 열린다(本立道生)'는 말처럼, 신뢰성 있는 주소체계는 행정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물류·교통·재난관리·스마트시티·민간 서비스 전반의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이러한 주소체계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소정책 연구 및 산업 활성화, 주소기반 서비스 품질 제고, 기술·표준·교육 확산을 통한 산업 생태계 강화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연결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며, 주소기반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뒷받침해 온 협회의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소식지를 통해 국가 주소정책의 변화와 산업 동향을 폭넓게 공유하고, 혁신적 기술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며, 주소 관련 기관·기업·전문가 간 정보교류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역시 향후 국가의 주소체계가 더욱 고도화되고, 주소기반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식지 창간을 축하드리며, 주소기반산업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는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첫 소식지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소식지가 주소기반 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소정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 중 하나로,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안전성, 편리함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주소정보는 공공행정과 민간 서비스 모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새로운 산업 창출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정보와 안내시설의 산업적 활용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여, 주소기반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노력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관련 기업들의 동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며,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는 지자체와 산업계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다양한 관련 단체들과 협력하여 주소기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 주소정보 시설의 품질 확보 및 표준화, 그리고 사업자의 저작권 보호 활동은 융·복합 사업 영역에서 중요한 지원책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주소정보 산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 산업이 지역 경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주소기반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첫 소식지 발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의 발전과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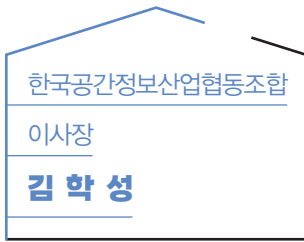
주소기반산업협회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은 단순한 소식 전달을 넘어, 주소기반 혁신산업의 미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주소는 행정 편의를 위한 보조 수단을 넘어, AI·로봇·자율주행·물류·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소 역시 더 이상 정적인 정보에 머무를 수 없으며, AI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 즉 주소의 AI 전환(AI Transformation)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소기반 산업협회가 그동안 추진해 온 표준화, 품질 고도화, 산업 연계 활동은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소미래혁신포럼과의 협력은 기술과 정책, 산업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핵심적인 접점으로서, 주소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를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와 정책, 산업 현장이 긴밀히 결합될 때 주소는 명실상부한 혁신 인프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K-주소는 국내 활용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국제표준과 AI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결합한 K-주소 모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세계로 확장 가능한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지가 이러한 비전과 실천을 연결하는 소통의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며, 주소기반산업협회가 K-주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중심축으로서 지속적인 역할을 해 나가기를 응원합니다.



주소기반 산업의 밝은 미래를 여는 소식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소는 단순히 위치를 표시하는 수단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최상위 인프라이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특히, 사람과 시간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Key로서 디지털 시대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주소 정보 산업이 더욱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사물주소를 활용한 물류서비스의 확대는 다양한 산업과 융복합되어 새로운 신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창간되는 소식지는 주소기반의 최신 기술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고, 산업의 미래를 확장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정보로 가득 찬 매체로 회원과 정책 결정자, 국민이 함께하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주소는 오늘도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진화되는 주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를 꿈꾸게 할 뿐만 아니라,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주소가 자원인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함으로써 주소정보 산업은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고,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소식지는 주소기반 산업의 미래를 위해 균형잡힌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는 지식 거점으로 견고하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주소기반산업협회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창간호의 발간은 우리 사회 전반에 주소정보의 공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능성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적제도를 기반으로 한 지번주소체계에서 국민 생활 편의성과 주소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로명주소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번과 도로명주소는 대립되는 체계가 아니라, 토지 중심의 관리체계와 생활 중심의 위치표시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결합한 융합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지적정보가 뒷받침될 때 도로명주소의 효용가치 역시 한층 높아질 것이며, 이는 곧 주소기반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 주소기반산업협회가 이러한 연계와 융합의 중심축으로서 관계·업계·학계 간 협력의 허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창간호를 계기로 소식지가 주소정보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식 공유와 정책소통의 장으로 성장하길 바라며, 한국지적학회 또한 협회의 발전과 주소산업의 진흥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과 지혜를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소기반산업협회 소식지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ABA

길을

열다

주소는 숫자와 글자의 나열을 넘어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언어다.

2000년대 초반 도로명주소 사업이 시작된 이후, 이 언어는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주소가 행정의 도구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의 기반이 되도록 길을 닦아왔다. 지면에서 도로명으로, 다시 사물주소와 AI 데이터로 확장되는 길 위에서 협회는 도전과 혁신의 순간마다 주소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왔다.

주소기반산업협회의 발자취 주소산업의 튼튼한 뿌리가 되다

글 편집부

디지털 대전환 시대,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를 넘어 산업·안전·행정 등 모든 영역을 연결하는 핵심 데이터로 자리매김했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이러한 주소기반 산업 생태계 구축과 기술 개발, 정책 지원을 목표로 대한민국 주소 산업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함께 성장한 산업 생태계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은 대한민국 공간정보 체계의 혁명이었다. 수십 년간 사용해온 지번 주소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성된 새로운 주소 체계가 도입되면서 위치기반 서비스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배달 앱, 내비게이션, 부동산 플랫폼 등 우리 일상 곳곳에서 주소정보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주소 데이터를 생산·활용·유통하는 다양한 비즈니스가 활성화되었다.

하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주소기반 산업 규모에 비해 제도적 지원과 산업적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행정안전부, 학계 전문가, 민간기업들이 뜻을 모아 2019년 7월 '주소기반산업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결성했다. 나종민 대표를 초대 회장으로, 정연일·김학성 대표가 부회장을 맡아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협의회는 2021년 11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주소 산업 분야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거듭났다. 주소 정책의 정책적 파트너로서 공식 인정받은 것이다. 2022년부터는 '주소정보 공동활용 지원'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위탁사업을 수행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주소활용기업 실태조사, 공유체계 연구로 시작한 위탁사업은 2025년 현재 2억 원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주소산업 통계, 데이터 지능정보, 주소시설 점검, 주소 동향 및 실태 연구 등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다.



주소기반 산업협회 연혁

2019. 07

주소기반산업협의회
창립

2019. 09

주소기반 산업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

2020. 09

주소기반 산업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

2021. 11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
설립인가 및 등기

주소 산업의 미래를 여는 플랫폼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지자체, 민간, 산업 연구기관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주소 데이터 품질 관리와 표준화를 선도하고, 주소 산업 교육·인증·전문인력 양성을 담당하며, 산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정책·규제 개선 제언을 아끼지 않는다.

협회가 매년 개최하는 '주소기반 혁신성장산업 컨퍼런스'는 주소기반 산업을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행사다. 부산, 대전, 충주 등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주소 정책·기술·산업·표준 정보를 공유하고, 산·학·연·관의 협력 플랫폼으로서 주소 혁신 서비스를 소개하며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재 협회는 주소정보산업진흥법 추진을 적극 지원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는 주소기반 산업 규모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주소정보산업진흥법이 통과되면 협회는 국가 주소 산업의 플랫폼 역할을 공식화하고, 주소 데이터 품질과 표준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INI INTERVIEW

25년간 주소와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조원제 사무국장

도로명주소가 도입되던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 분야에 입문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도로명주소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며 함께 성장해왔죠. 이 시기에 같은 길을 걸어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관계자, 학계, 민간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분들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설립, 행정 업무, 위탁사업 수행 등 모든 것이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3년 전 지금의 사무실로 확장 이전하던 날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직원 한 명에 조그마한 사무실이었는데, 지금은 두 배 정도 큰 사무실에서 6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으니가요. 협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협의회로 시작해 2021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승인받고, 2022년부터 위탁사업을 수행하면서 협회는 명실상부하게 주소기반 산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갖춘 기관으로 동반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억 원 정도의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주로 통계, 데이터 지능정보, 동향 파악, 실태 조사, 시설물 점검 등의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가 나아가야 할 길은 주소정보산업진흥법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민간, 산업 연구기관의 플랫폼으로서 가교 역할을 해야 하고, 품질 관리와 인증 업무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주소기반 산업 생태계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규제를 개선할 수 있는 제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엔 회장님과 3기 임원진을 필두로 대한민국 주소기반 산업의 발전과 국가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 02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공동 활용지원 위탁사업 수행



2023. 05

주소정보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연구용역 수행



2024. 12

주소정보 산업통계
업무위탁 국가통계 승인



2025. 02

22~25년 행정안전부
위탁사업 연속 수행

주소기반산업협회의 활동 및 추진현황

주소정보산업의 실체적 성장 기반을 다지다

글 한가람 수석 · 박승이 선임 · 오윤석 연구원

주소정보가 단순한 위치 식별 수단을 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핵심 국가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동향 조사부터 산업의 실체를 정량화한 국가승인통계 지정, 그리고 국민 안전을 담보하는 시설 점검까지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치며 산업 생태계의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최근에는 주소 데이터를 지능형 지식그래프로 변환하는 AIX(Address Intelligence eXpansion)를 통해 AI 시대의 신뢰할 수 있는 기준 데이터를 정립하며, 대한민국 주소정보의 새로운 미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주소정보 산업동향 및 우수기업 조사

주소정보 산업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산업 동향 분석과 뉴스레터 정기 발간을 지속하고 있다. 뉴스레터를 통해 주소정보 활용 사례와 국내외 산업 동향을 공유하며 주요 산업 이슈를 종합적으로 전달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드론·로봇배송, 스마트시티·디지털트윈, 공간정보 등 미래 산업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를 분석했다. 또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데이터 품질·표준 강화 등 핵심 과제를 도출했다. 이와 함께 우수 산업서비스 홍보를 위한 K-GEO페스타 부스 설치와 기업 간담회 추진, 몽골 대상 현장 견학 등을 통해 주소정보 산업의 인지도 제고와 해외 진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해외진출 지원 기업간담회 (7. 31.)



▲ K-GEO 부스설치 우수 산업 서비스 홍보(9. 24. ~ 9.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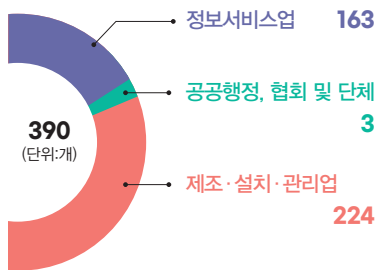
주소정보 산업통계

주소정보 산업통계는 주소기반 산업의 실체를 국가 승인 절차를 거쳐 처음으로 정량화한 공식 통계로, 협회가 기획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추진해 온 대표 사업이다. 2022년 주소정보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정립하는 기초연구를 시작으로, 2023년 시범조사를 통해 분류체계와 조사 방법을 검증하였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2024년 11월 13일 국가승인통계 제110033호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첫 조사 결과, 주소정보 산업 영위 사업체는 487개, 매출액은 약 6,700억 원, 종사자는 약 3,600명 규모로 파악되어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 더불어 2025년 12월 주소정보 산업 특수분류체계 고시를 이끌어내며, 주소정보 산업은 국가 통계 체계 내에서 독립적인 산업 영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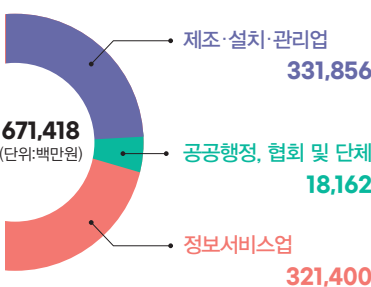
· 조사대상 주소정보산업 영위 사업체 390개사 · 조사기간 2024. 11. 13.~2024. 12. 13.

2024년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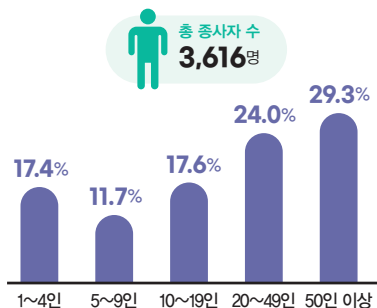
주소정보 산업 대분류 기준 사업체 수



주소정보 산업 대분류 기준 매출액



주소정보 산업 종사자 규모별 분포



주소정보 시설점검 사업

주소정보 시설점검 사업은 국가지점번호판, 기초번호판 등 주소정보 시설의 위치 정확도와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기초번호판은 건물이 없는 도로 구간 등에서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대표 시설로,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도달을 위해 정확한 설치와 위치 정보의 신뢰성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기초번호판을 우선 대상으로 단계적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2024년 33,366점, 2025년 95,125점을 점검하였으며, 2026년에는 잔여 물량 전량을 조사하여 위치 정확도 및 설치 상태 이상 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AI 시대의 새로운 나침반, '주소 지능정보'가 이끄는 A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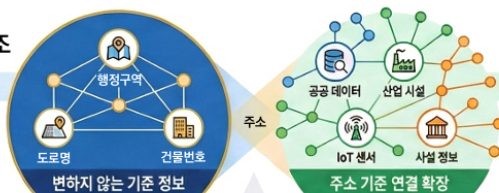
AI 기반 산업 환경이 확산됨에 따라,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식별 수단을 넘어 AI 학습·추론·판단의 기준 데이터로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주소 데이터 지능정보와 AIX(Address Intelligence eXpansion)는 기존 주소정보를 HSM(계층·공간·의미) 구조로 재구성하고, 행정구역·도로·건물 등 표준 데이터세트에 포함된 주소 요소를 노드(node)와 관계(edge) 형태의 지식그래프로 변환하여 AI와 결합 가능한 주소기반 추론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 데이터 지능정보 생성·운영 사업'을 통해 국가 주소정보를 AI 활용이 가능한 표준 데이터세트로 정립하고, HSM 구조를 갖춘 주소 지식그래프와 한국형 주소신경망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재 해당 지식그래프는 6,300만 개 이상의 노드와 6,000만 개 이상의 관계로 구성된 대규모 구조로 구축되어 있으며, 286종의 공공데이터와 연계를 통해 주소를 중심으로 한 데이터 결합, 검색, 관계 분석이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다. 또한 실증 과정에서 주소 지식그래프를 활용한 LLM 적용을 통해, 기존 비정형 데이터 기반 RAG 방식에서 문제로 지적되던 주소 분야의 LLM 환각(hallucination)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소 데이터가 AI 기반 추론과 판단에서 신뢰 가능한 주소 기준 데이터(address reference data)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주소 데이터 지능정보가 단순한 행정정보를 넘어, 향후 AI 산업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핵심 기반 인프라로 발전할 가능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업 수행 전체 개념

주소 지식그래프의 이중 네트워크 구조

Core Network: 국가 주소체계의 핵심

행정구역, 도로명, 건물번호 등 변하지 않는 국가 주소정보의 표준 구조를 정의



External Network: 외부 데이터의 연계 확장

주소를 기준으로 공공, 산업, 시설, 센서 등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수용하는 확장 계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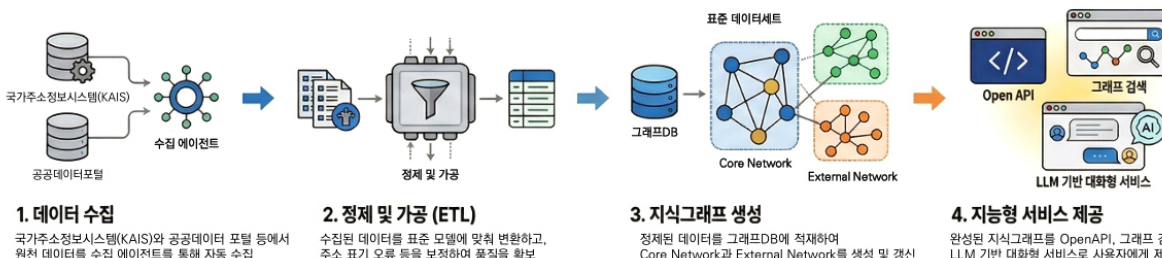
HSM 모델: 데이터 구조화의 3가지 축

모든 주소정보를 계층(Hierarchical), 공간(Spatial), 의미(Meaning)의 3가지 축으로 구조화

HSM 모델: 데이터 구조화의 3가지 축

계층(Hierarchical), 공간(Spatial), 의미(Meaning)

데이터 처리 및 서비스 파이프라인



1. 데이터 수집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과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서 원천 데이터를 수집 에이전트를 통해 자동 수집

2. 정제 및 가공(ETL)

수집된 데이터를 표준 모델에 맞춰 변환하고, 주소 표기 오류 등을 보정하여 품질을 확보

3. 지식그래프 생성

정제된 데이터를 그래프DB에 적재하여 Core Network와 External Network를 생성 및 갱신

4. 지능형 서비스 제공

완성된 지식그래프를 OpenAPI, 그래프 검색, LLM 기반 대화형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제공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주소정보가 물류, 안전, 스마트시티 등 산업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지원해왔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만족도를 측정하며, 해외 사례를 연구하는 과정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라 다음 이정표를 세우기 위한 준비였다.

이렇게 찍힌 하나하나의 이정표가 모여 주소정보산업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그려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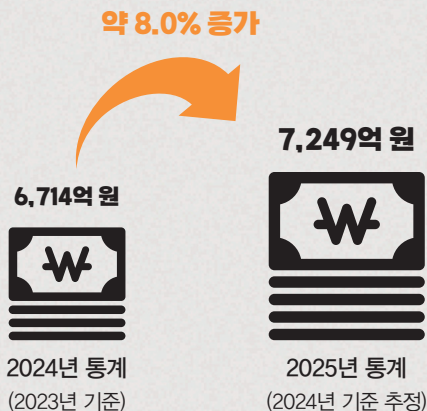
주소는 오랜 세월 단순히 '위치'를 특정하는 행정적 수단이었다. 그러나 도시와 사회의 발전, 물류와 내비게이션의 고도화 및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자율주행, 무인 드론·로봇 배송, 재난·안전 시스템 등 미래 첨단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원으로써 주소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 아울러 산업의 변화와 발전에 맞게 '주소정보'라는 데이터 중심의 공공재로 지속 발전해 왔다.

국가통계로 본 주소정보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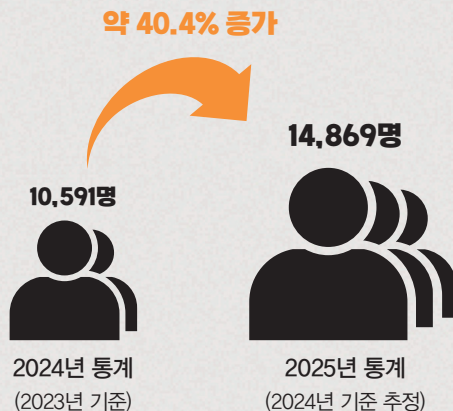
행정안전부는 공공재의 한계를 넘어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 잡은 주소정보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혁신 성장 산업 동력의 기폭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소정보 산업을 국가통계로 조사하고 있다.

2년간의 통계 결과는 주소정보가 단순한 위치 표기를 넘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자원으로 산업계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기반한 체계적인 주소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주소정보 산업은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이후 생겨난 신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성장세로 중소기업 중심의 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매출 규모,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유의미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매출액 변화



👤 종사자 수 변화



특히, 주소정보 데이터 획득 경로를 보면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데이터의 활용 비중이 94.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는 전년 대비 14.3% 증가한 수치로 정부가 구축한 고품질 주소정보가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 준다. 이처럼 주소정보 산업 국가통계는 관련 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향후 정부 정책이 집중해야 할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주소정보의 데이터 지능화와 융·복합 지원이 신속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계는 주소정보의 정부 지원 항목 중 데이터 지능정보(주소정보 기반 검색, 챗봇, 추론 등)를 가장 필요한 정보로 꼽고 있다. 이는 주소 정책이 기존의 '도로명주소'와 같은 기초 정보 뿐만 아니라 주소정보와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창출하는 '주소지능정보' 생태계를 구축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는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혁신적인 융·복합 서비스 개발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도록 3차원 입체주소, 사물주소와 같은 정밀 주소정보 기반의 정책 개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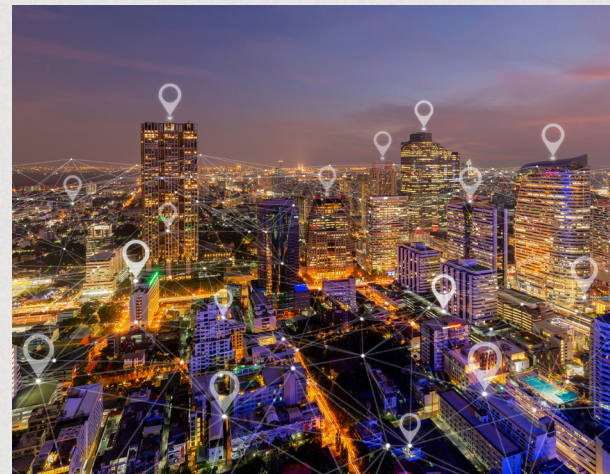
두 번째로 주소정보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수분류체계로의 통계 정책 전환이다. 주소정보 산업은 중소기업 중심의 독특한 신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산업의 특수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연계된 '주소정보 산업 특수분류체계'를 개발 중이다. 주소정보 산업의 특수분류체계가 완성되면 통계의 공신력과 대표성이 한층 높아지고, 드론·로봇 배송 실태 등 미래 산업의 주소 활용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맞춤형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주소정보의 융·복합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와 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이다. 2년의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계는 주소정보 산업의 연구개발(R&D)과 판로·마케팅 지원, 한국형 주소 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한 산업의 동반 진출을 가장 필요한 항목으로 답했다. 이는 주소 정책과 주소정보 기술의 우수성을 ISO(국제표준화기구)를 포함한 많은 해외 국가에서 인정받은 만큼 '한국형 주소지능정보' 서비스를 해외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업·정부가 글로벌 시장 개척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위치에서 가치로, 주소정보 산업의 미래

이처럼 주소정보 산업 국가통계는 주소 정책을 단순한 위치 기반의 행정 영역을 벗어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체계적인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주소정보 산업 국가통계가 제시하는 산업의 성장 추이, 데이터 지능화 및 해외 진출 수요, 그리고 특수분류체계 전환은 향후 주소 정책이 나아가야 할 명확한 로드맵이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는 주소정보가 공공재라는 필연적 인식하에 산업계가 요구하는 주소정보의 정확성을 높임은 물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주소정보를 구축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와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정보 산업 국가통계를 기반으로 주소정보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끊임없이 창출하고, 시시대를 선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주소정보는 행정서비스를 넘어 위치정보·공간정보와 결합되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관련 특히 동향은 주소정보 산업의 기술 수준과 활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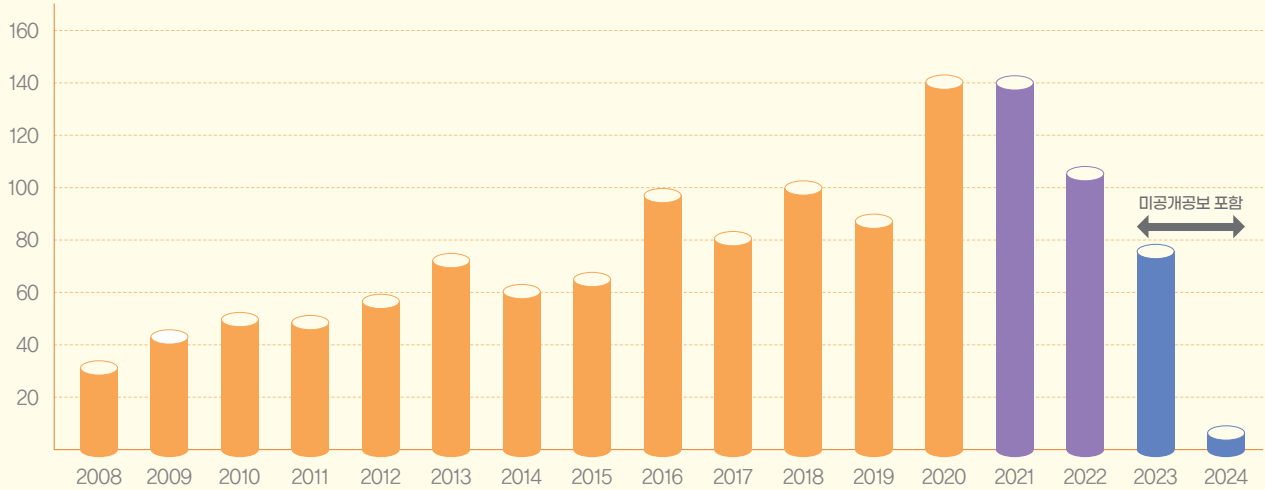
주소정보 관련 기술에 대한 유효특허 현황

기술분야	분류코드	선별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위치정보(공간정보) 기반 기술	A1	37	31	31	2	101
주소정보(도로명주소정보) 기반 기술	A2	36	20	13	1	70
단위유닛체계를 이용한 데이터 생성	A3	4	3	0	0	7
차량(내비게이션) 적용 기술	B1	10	10	3	0	23
드론 적용 기술	B2	45	26	22	2	95
응용 서비스/정보표출(표지판 등) 기술	C	8	15	6	0	29
합계		140	105	75	5	325

최근 국내 주소정보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분석 결과, 기술 분류별 특허의 구성과 비율은 과거와 비교해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치정보 및 공간정보 기반 기술, 도로명주소 기반 기술, 차량·드론 적용 기술, 응용 서비스 기술 등 6개 세부 기술 부문 전반에서 특허출원은 일정한 분포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소정보 관련 연구개발이 안정적인 단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2008~2024년 특허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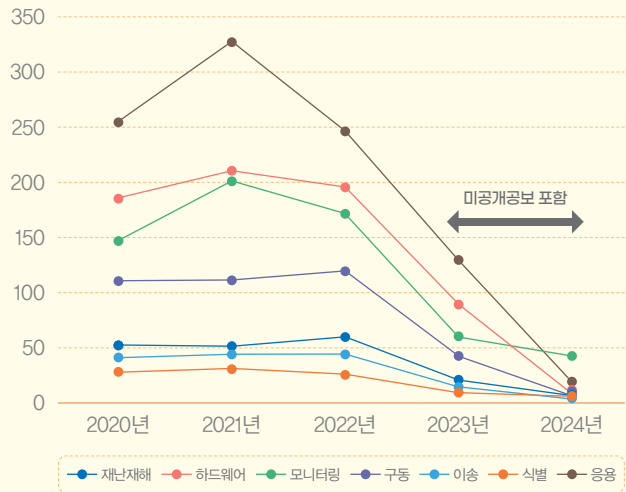
특히 주소정보가 단독 기술로 활용되기보다는 내비게이션, 드론, 물류,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결합 및 활용되고 있는 특허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주체별로 살펴보면, 정부기관의 특허출원 활동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정부기관은 다수의 특허를 지속적으로 출원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연구·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기술 성과가 지식재산권으로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소정보를 포함한 공간정보 관련 특허 역시 여러 정부기관에서 유의미한 건수로 출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간기업의 경우 주소정보 활용 방식에 따라 특허출원 실적에 차이가 나타나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드론을 대상으로 한 특허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난다. 주소정보와 위치정보는 드론 기술 구현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특허가 다양한 세부 기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출원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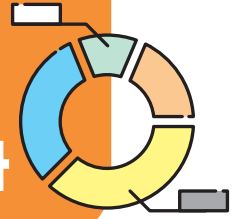
드론 관련 특허출원의 7-카테고리별 시계열 동향



다만 최근 출원 건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향후에는 단일 기술 중심의 개발보다는 응용 분야 확대와 기술 융합을 통한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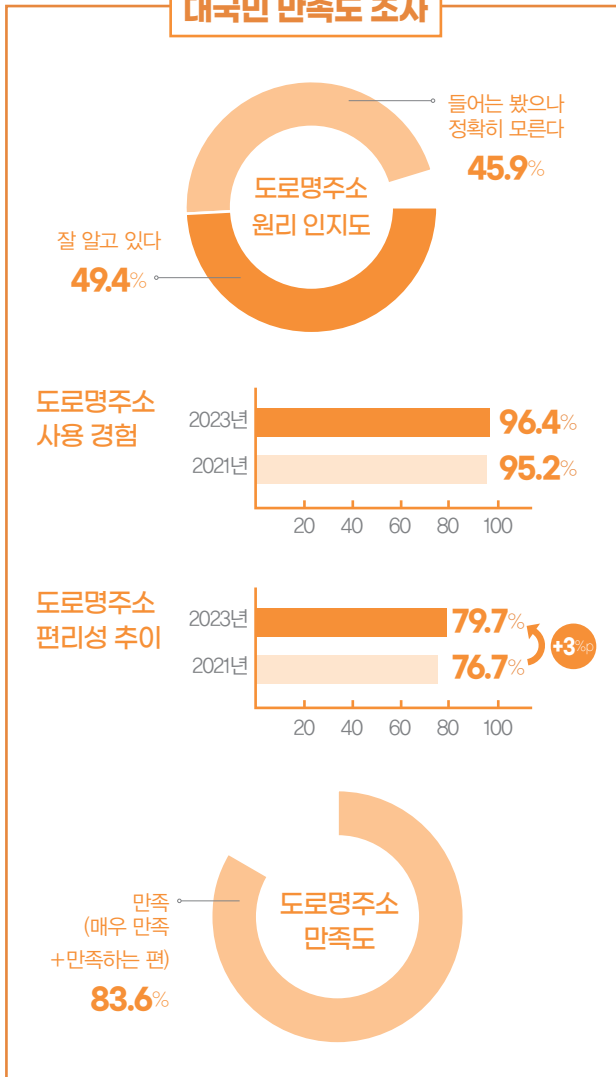
종합적으로 볼 때, 주소정보 관련 특허 동향은 기술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적 활용과 응용 확대의 국면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응용 서비스와 더불어, 복수 기술이 결합되는 융합 영역에 대한 활용 가능성에 점차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로명주소, 주소정책 만족도 조사결과 데이터로 읽는 주소, 길을 묻고 답을 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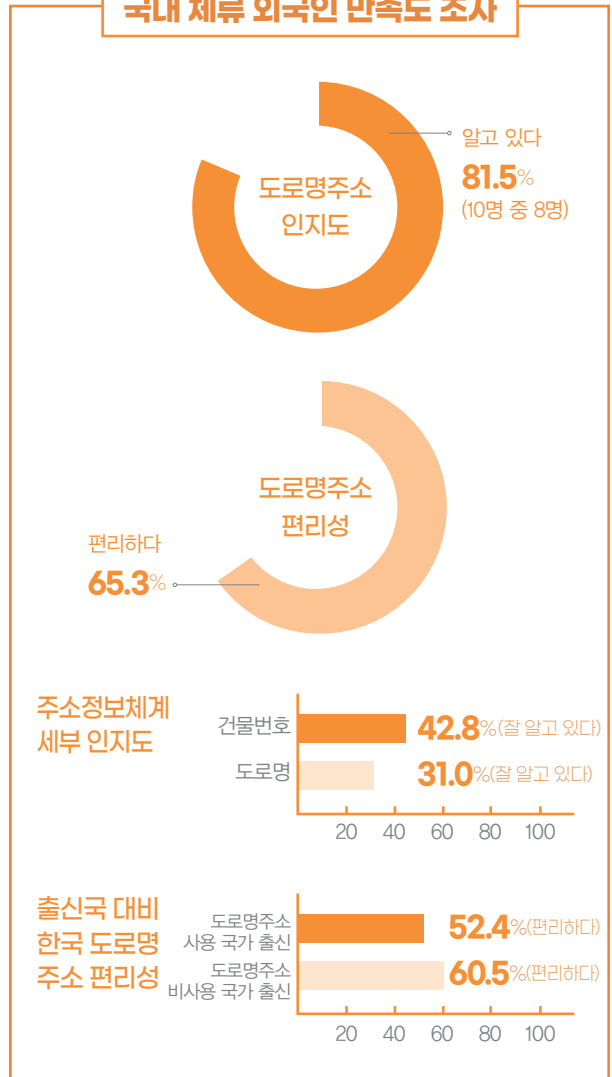


주소기반산업협회(KABA)가 실시한 2023년 주소정책 만족도 조사 결과, 국민 83.6%가 도로명주소 사용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대비 편리성 인식도 3.0%p 상승하며 주소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한편 2024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60% 이상이 자국 주소체계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가 더 편리하다고 응답해 우리나라 주소정보체계의 우수성도 체감할 수 있었다. 정리 편집부

대국민 만족도 조사



국내 체류 외국인 만족도 조사



조사개요

기간 2023년 10월 23일~11월 3일
대상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
표본 총 2,500명(성, 연령, 지역별 비례할당)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1.96%p 수준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조사개요

기간 2024년 11월 2일~12월 6일
대상 전국 17개 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국내 체류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가정 가구원)
방법 이메일을 이용한 웹조사, 현장 방문 일대일 면접조사
표본 총 500명(출신 국가 대륙별 및 체류 유형별 할당)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주소정보, 세계를 잇는 또 하나의 K-브랜드

글 김이수 LX한국국토정보공사 팀장

과거 우리에게 'made in USA'는 선진국의 상징이자 품질의 보증수표였다. 하지만 오늘날 세계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만큼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찾기란 쉽지 않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한 제품 경쟁력을 넘어, 선진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수출하는 '정책 서비스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우리 삶의 근간이자 미래 산업의 핵심 자산인 'K-주소'가 있다.

행정의 뿌리에서 미래 산업의 핵심 데이터로

주소는 행정의 시작점이자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공공 인프라다. 대한민국의 주소정책은 도로명주소 도입 이후 위치 표기 체계를 표준화하고, 이를 교통·안전·물류 등 디지털 서비스와 결합하며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정확한 주소는 응급 구조와 재난 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비대면 물류와 행정 효율을 극대화하며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주소는 이제 단순한 위치 표기를 넘어, 사회의 편의와 안전을 지탱하는 핵심 데이터로 기능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받는 K-주소의 위상

정부는 이러한 한국형 주소체계를 글로벌 표준으로 확립하고 해외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제협력과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성과로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주소 부여'와 '유지관리' 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K-주소의 국제적 인지도를 확보했다. 이를 발판 삼아 한국의 주소정보 기술과 정책 경험은 아프리카, 몽골,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장되며 실질적인 해외사업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는 가장 먼저 협력 기반이 구축된 지역이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체결한 업무협약은 주소체계 현대화의 신호탄이 되었다. 에티오피아 도시인프라부와 함께 주소정보 현대화 역량강화 모델을 설계하며 제도·

시스템·운영을 아우르는 통합 접근을 시도했다. 탄자니아 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가주소시스템 개선 컨설팅을 추진하며 행정서비스 접근성과 도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주소를 통해 국민의 일상과 행정의 연결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K-주소 해외진출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는 몽골이다. 2024년 양국 간 주소체계 현대화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이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서울의 거리'에 한국형 도로명판이 설치되었다. 이는 한국형 도로명판이 해외에 설치된 첫 사례로, 주소가 시민의 이동과 도시 인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2025년에는 몽골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주소 전문가단을 파견해 몽골 주소법 개정안 컨설팅을 완료하며 제도적 기반까지 한국의 경험을 접목했다. 이를 토대로 2026년부터는 약 110억 원 규모의 KOICA ODA 사업을 통해 몽골의 주소정보 현대화와 공공서비스 개선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중앙아시아에서도 K-주소는 빠르게 확장 중이다. 우즈베키스탄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소체계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현대화 타당성 조사를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역시 디지털 정부 구축의 일환으로 주소정보 시스템 고도화에 주목하고 있으며, 법·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 전략을 포함한 컨설팅 사업을 통해 협력의 폭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정책과 산업의 동반 진출, K-브랜드의 미래

K-주소의 해외 진출은 단순한 시스템 전수를 넘어 '정책·기술·산업'이 동반 성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소는 물류·공간정보·플랫폼 산업 등 4차 산업혁명 전반이 공유하는 기초 데이터다. 따라서 주소정책의 확산은 우리 기업들이 활약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출발점이 된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소기반산업협회 등 공공·민간의 전문성이 결합된 'K-주소 모델'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주소는 이제 '사는 곳'을 넘어 '모든 사물의 위치를 식별하는 연결고리'로 진화하고 있다. 로봇과 드론, 디지털 행정과 스마트 물류로 확장되는 주소의 가치 속에서 한국의 경험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다. 머지않아 세계 곳곳에서 한국형 주소체계가 일상의 편리함을 높이는 기준으로 자리 잡고, 한국의 주소시스템이 세계 어디서나 믿고 사용하는 'made in Korea' 정책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시와 융합기술이 주소정보와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해왔다.

재난 현장의 긴급출동 시스템부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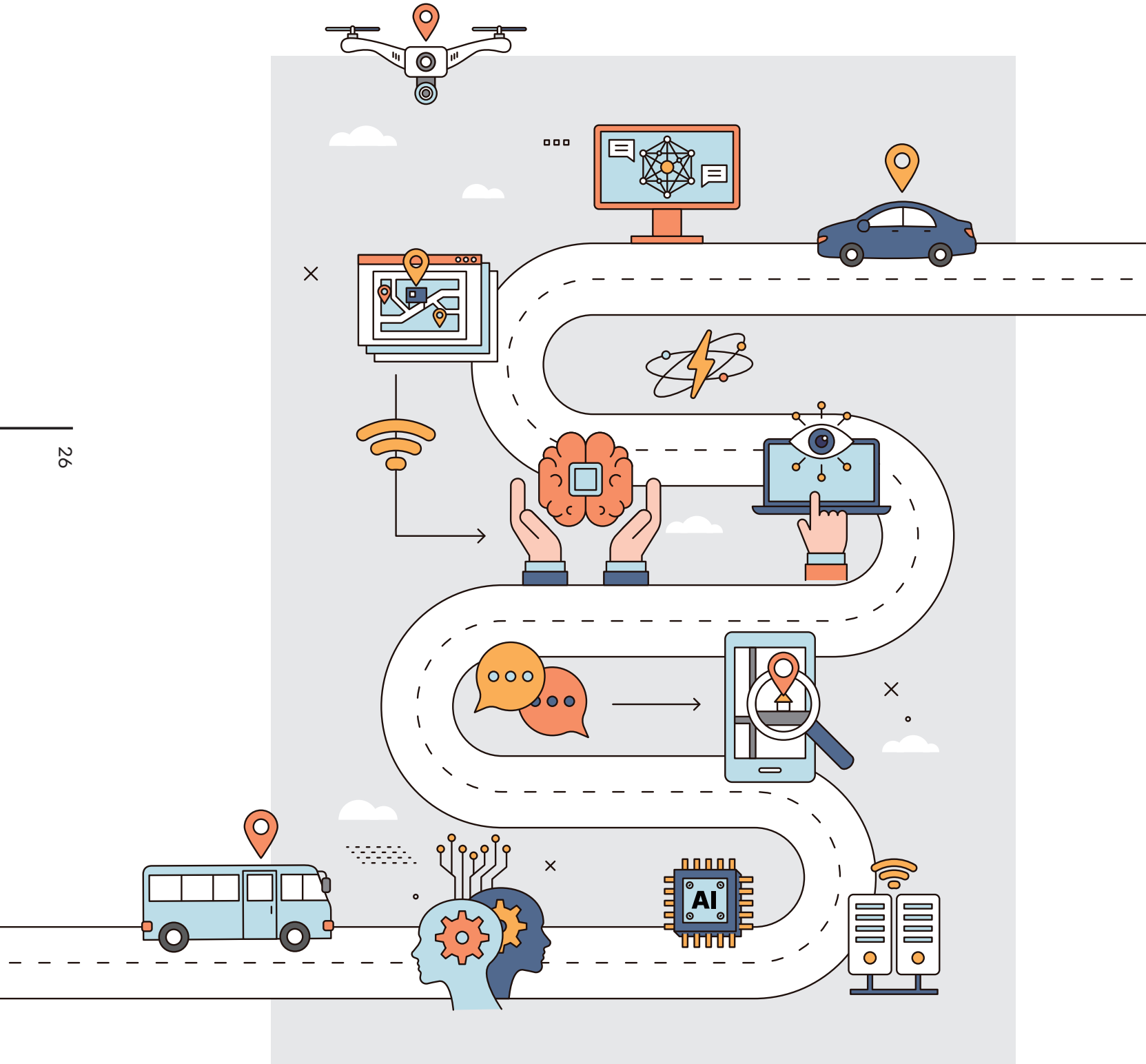
주소는 점차 생명을 구하고 도시를 움직이는 핵심 데이터가 되어가고 있다.

산업계와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그려낸 미래의 지도 위에서 주소가

열어갈 내일을 먼저 읽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 주소 정책 변화에 따른 산업진흥 제도의 필요성

글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에서 기술적 영역과의 결합을 통하여 '위치를 식별하는 구조화된 정보'(ISO 19160-1)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다. 즉, 현재 주소는 계속된 위치정보에 행정적 정보를 부가하여 우리 사회에 법적,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고 진흥시키는 공감형·탄력형 정보로 그 개념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주소 개념의 변화는 2025년 6월에 출범한 현 정부의 정책기조, 국정과제, 각종 정책 등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다.

정부 정책에서 옛본 주소의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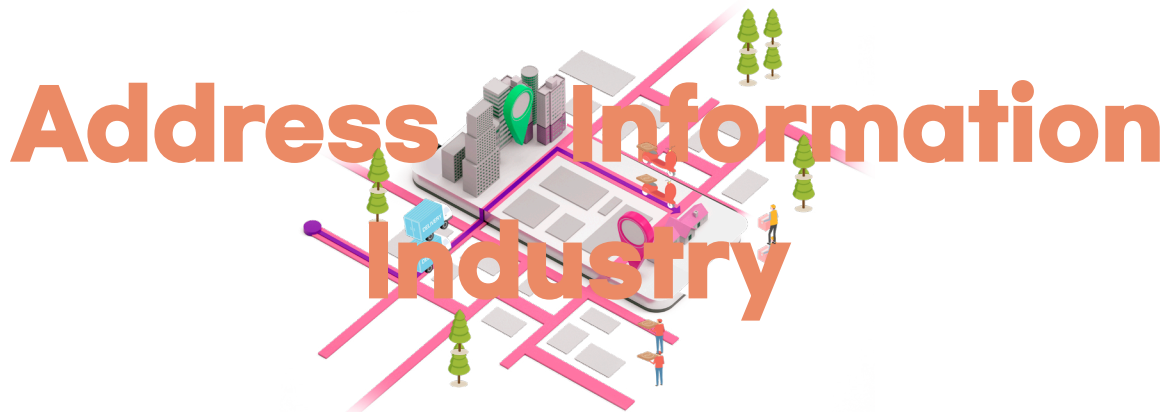
우선 정부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국민의 모든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사회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의미하는 「기본사회」 구현이 있다. 이러한 기본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위치를 식별하는 구조화된 정보 즉, 주소가 기본사회의 필수적 요소가 된다.

그리고 정부는 2026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2026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는데, 주소정보 산업(드론·로봇 배송, 실내·주차면 내비게이션, 자율차 주차, 주소

는 의미다. 더욱이 2025년 12월에 개최된 2026년 행정안전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행정안전부는 플러스 과제로 민생과 혁신이 조화되는 튼튼한 경제의 혁신 분야 중 혁신 분야로 주소정보 산업을 제시하면서 「진흥법」의 제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정부의 주소 정책은 주소를 정보로 개념을 확대하고 주소정보의 다양한 활용 및 관련 산업의 경제적 가치 및 시장 규모의 확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구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진흥법」의 입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진흥법」은 산업진흥과 기술 육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흥 및 육성에 대한 종합적 성격의 입법구조가 될 것이다.

진흥법의 구심체가 될 주소기반산업협회

그런데 정부의 주소 정책 집행 및 「진흥법」의 제정·시행에는 정부의 주소정보 산업 진흥 정책에 대한 주소정보 산업계와의 가교 기능 및 주소정보 산업계가 자율성을 가지고 혁신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주소정보 산업계의 대표성을 가지는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이 바로 「주소기반산업협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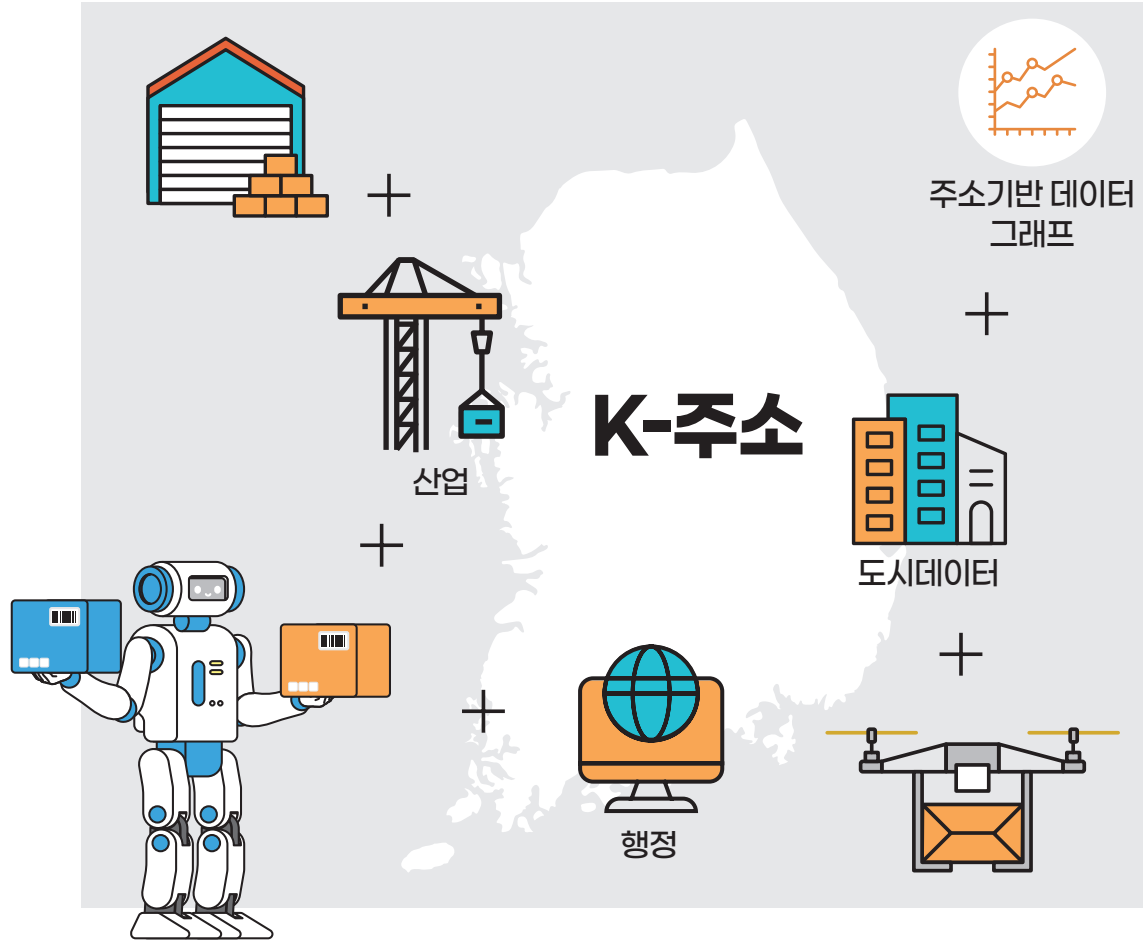
부여·인증·정제, 시설 관리 등)은 경제성장률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비약적 성장이 추정되는 등 「2026 경제성장전략」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

또한 주소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와 관련이 깊다. 특히 정부의 AX(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인공지능 대전환)를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 축으로서의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의 실현을 위한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2025년 11월 발표)에서는 공공데이터의 49%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AI전환(기존의 주소정보를 AI학습을 위한 좌표 등으로 데이터 전환)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주소정보 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이라 한다)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정부의 정책인 AX의 기반은 정보이고,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서의 정보 중 가장 핵심적인 정보가 주소정보라

「주소기반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2019년 7월 창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소정보 산업 진흥을 위한 주소정보 품질 활동, 주소정보 품질 및 표준연구, 주소정보 전문인 양성 및 교육 인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 주소정보 산업 발전에 디딤돌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기반을 가지고 앞으로 협회는 정부의 주소 정책 및 「진흥법」을 통하여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즉 2025년 4월에 개최된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 방안 설명회'에서 나종민 협회장이 말한 바와 같이 '협회는 향후 민관 협력의 강화와 민간 중심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의 선도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이러한 협회의 방향성은 협회가 정부의 다양한 주소정보 산업 진흥 정책에 지속가능성을 부여하고, 주소정보 산업의 혁신적 운영을 주도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주소정보와 AI의 융합으로 국가 디지털 미래를 열다

글 이재석 한국과학기술원 연구교수



주소체계는 오랫동안 우편 배달과 행정 처리에 최적화된 구조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로봇 배송, 드론 운항, 실내 내비게이션, 스마트 시티, IoT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는 오늘날의 산업 환경에서는 기존 주소만으로 현실 세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주소정보는 단순한 위치 표기 수단을 넘어 디지털 세계와 물리 세계를 연결하는 'AI 국가 전략 인프라'로 재인식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 전환의 핵심 동력이 바로 인공지능(AI)이다.

AI와의 융합으로 주소지능정보 재구성

최근 주소 관련 데이터는 건물 외곽 중심의 전통적 구조에서 벗어나 실내 공간, 출입구와 동선, 특정 시설과 사물의 위치, 층·호 단위의 미세 공간정보는 물론 로봇과 드론이 실제로 이동 가능한 경로 정보까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소를 활용하는 데이터는 기관과 사업자마다 형식과 기준이 다르고, 갱신 주기 역시 일관되지 않아 산업적 활용에 큰 제약이 따른다. AI와의 융합이 필수적인 이유는 이처럼 파편화된 정보를 자동으로 정제·연결·추론 가능한 '주소지능정보'로 재구성함으로써, 산업·행정·



안전 전반에서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지능형 주소체계로의 전환은 세 가지 기술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표준 데이터세트'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주소·장소·시설 데이터를 하나의 일관된 기준 아래 통합해 시가 정확히 학습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주소의 형식과 좌표, 공간적 맥락을 정돈하는 작업으로, 모든 지능화 기술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주소지식그래프'는 주소를 계층(H), 공간(S), 의미(M)의 구조적 관계로 연결함으로써 주소를 단순 텍스트가 아닌 '맥락'을 가진 데이터로 재해석한다. 이를 통해 주소가 출입구, 인접 시설, 재난·교통 데이터와 맺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나아가 행정·산업·도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소기반 국가 데이터 그래프'의 토대가 된다.

셋째, '한국형 주소 신경망'은 이러한 기반 위에서 작동하는 AI 추론 엔진으로, 약칭이나 구어체, 불안정한 주소 등 실제 생활 속 다양한 표현을 표준주소로 변환하고 주소와 연계된 공공 데이터 정보를 종합해 정교한 추론을 수행하는 두뇌 역할을 담당한다.

이 세 가지 기술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주소체계는 행정 편의의 수단을 넘어, 긴급신고 위치 정확도 향상, 물류 경로 최적화, 도시 운영 자동화 등 국가 운영의 핵심 요소로 확장된다. 주소는 더 이상 보조 데이터가 아니라, AI 시대 국가 지능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소 지능정보의 정착을 위한 협회의 역할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서 협회의 역할은 보다 전략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협회는 단순한 이해관계자 단체를 넘어 주소 산업 전반의 기술·데이터·제도 생태계를 조정하는 핵심 중추

기관으로 기능해야 한다. 우선 표준 데이터세트의 국가적 정착을 위해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표준 규격과 품질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민간이 보유한 방대한 장소 정보가 표준 데이터세트 수준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검증 도구와 인증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기준을 통과한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주소정보 활용 생태계의 설계자로서, 민간 기업과 지자체가 쉽게 주소지능 인프라에 편입될 수 있도록 기술 가이드라인과 오픈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형 주소 신경망의 산업 도입을 위해 주소 식별 정확도와 추론 품질을 평가하는 '주소 SI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도메인별 학습데이터 구축을 주도함으로써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안전한 결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산업 전반의 협업 허브로서 로봇, 드론, 물류 플랫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테스트베드와 실증 사업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동시에 지능형 주소체계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위치정보 활용 등 법·제도적 쟁점에 대해 전문적인 정책제안을 수행하며 정부와 민간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필요하다.

주소지능 플랫폼 운영자로서 변화를 이끌어야

결국 협회의 미래는 표준을 만들고, 품질을 검증하며, 생태계를 연결하는 '주소지능 플랫폼의 운영자'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협회의 역할이 강화될 때, 공공서비스 혁신을 넘어 민간 산업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핵심 인프라로 성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같은 선진적 융합 모델은 글로벌 표준을 선도하는 'K-주소'의 해외 진출 기반이 될 수 있다. 시와 결합한 지능형 주소체계가 국가 디지털 전환을 이끄는 든든한 토대가 되기를 기대하며, 협회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변화를 주도해 나가기 바란다.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융합 주소발전 방향

글 김지영 건국대학교 Social Eco Tech 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행정안전부에서 주소 부여 기준 등에 대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주소를 부여·관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에서 생산된 주소는 국가주소정보라 명명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을 통해 검색을 지원하고 텍스트나 전자지도, AP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통(business.juso.go.kr)하고 있다.

국제표준(ISO 19160-1)에서는 주소는 객체를 식별하기 위한 구조화된 데이터나 식별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주소가 다양한 데이터의 기준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국가 주소정보를 이용하여 범위주소, 사서함주소 등이 포함된 우편번호DB, 우체국 배달점 주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하여 활용 및 유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여러 정부기관에서 생성된 주소를 통합하고, 통합된 주소에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연계하여 사용자에게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2005년 설립된 비영리 커뮤니티 기반 프로젝트 GeoNames(<https://www.geonames.org>), 2006년 시작된 세계 주소, POI(Point of Interest), 도로, 행정경계 데이터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지오코딩 및 위치 기반 서비스 플랫폼 Gisgraphy(<https://www.gisgraphy.com>), 2022년 리눅스 재단 산하 Overture Maps Foundation이 주도한 개방형 지리정보 프로젝트 Overture Map 등을 통해서 주소와 다른 이종의 데이터가 연계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소기반산업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분야나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소가 데이터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산업에서 주소기반의 가공 데이터가 활용되기 위해서는 데이터 스키마에 대한 표준이 마련되고, 이를 검증하고 인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가공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채널도 마련되어야 한다. 주소기반산업협회는 주소가 중심이 되는 AI Ready KOREA로의 전환을 위하여 장소 지능(Place Intelligence)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생활정보 홍보 우편서비스 개요

출처 : prpost.kr/kor/inquire/notice.php?m=v&idx=31&pNo=6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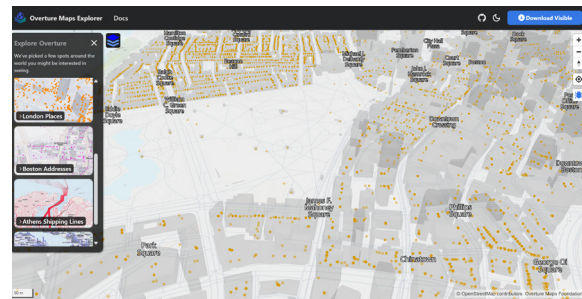
건물 유형(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전용면적, 주택가격, 건축 연도, 소유주 지정(자가, 전세), 업종 지정 등 조건에 맞는 공공 빅데이터 추출 (EX. 신축 아파트 주소 추출로 고객 타겟 가능)

건물 유형	아파트, 빌라/연립, 오피스텔, 단독주택
면적	66㎡미만, 66㎡대, 99㎡대, 132㎡대, 165㎡대
주택 가격	1억원 미만 ~ 60억원 이상 (1억원 단위)
소유주	자가, 임대, 전세
건축 연도	고객이 원하는 연도로 지정하여 이용 가능
업종	정부기관, 공공, 식품, 의료, 생활, 부동산, 숙박, 관광 등 세부데이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이 제공하는 3,180만개 공공데이터 기반 전국 주소 DB 활용

Overture Maps Explorer에서 가시화된 Boston Addresses

출처 : explore.overturemaps.org/#15.94/42.353714/-71.065192/0/52



G-NAF 제품

출처 : www.youtube.com/watch?v=2rp_LHIBkWA

Different "types" of G-NAF

G-NAF
Quarterly Open data



G-NAF Core
Flattened Quarterly, open date



AI 시대를 함께 열어갈 전문가 ‘주소정보활용사’

글 이효상 신한대학교 토지행정학과 교수



주소는 더 이상 단순한 위치 표기가 아니다. 도로명주소를 넘어 사물주소, 국가지점번호, 이동지능정보 등 확장된 주소정보는 행정·산업·안전·물류·스마트시티·AI시대 전반을 연결하는 핵심 데이터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AI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 되는 오늘날, 주소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고 있다.

주소정보 전문 자격이 필요한 이유

주소정보의 중요성에 비해 이를 체계적으로 다룰 인력 양성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만 종의 민간자격이 등록돼 있으나, 주소정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자격은 없는 실정이다. 주소정보 업무가 도입된 지 약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일선 시·군·구에서는 주소정보 업무를 전담하는 팀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주소정보 산업 분야 역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지자체, 민간에서는 주소 데이터의 활용, 서비스와 산업에 적용할 실무형 인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간정보(GIS)의 2023년도에 공간정보융합기능사, 공간정보 융합산업 기사를 국가기술자격으로 도입하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주소정보도 공간정보, 지적정보, 부동산 정보 등과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활용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결할 전문성은 현장에서 늘 부족하다. 이러한 공백을 메울 현실적 대안으로 가칭 ‘주소정보활용사’ 민간자격 도입을 제안한다.

주소정보활용사 자격 조건과 업무

주소정보활용사는 도로명주소 법령 이해, 주소정보 데이터 활용 및 실무 중심의 주소정보 활용의 역량이 요구된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도로명주소 법규, 주소정보 데이터 이해 및 활용, 실습 교육(주소통계, 주소전환 서비스 등)을 자격시험 검정과목으로 제시한다. 주소정보활용사는 민간자격 등록 후 공인자격 및 국가자격으로 발전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격 검증

교육과목의 구체적인 현황은 도로명주소 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주소정보 데이터 이해(주소전환, 국가지점번호 등), 실습 기반 데이터 활용(주소통계, 주소 정제 등) 등이다. 교육 방식은 행정안전부 인재개발원과 주소기반산업협회 등과 협력한 현장 실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소정보활용사는 도로명주소 체계와 관련 법·제도, 주소정보 시스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간정보, 지적정보, 부동산정보 등과 연계, 공공·민간 서비스 적용, 재난 안전 및 스마트 행정활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자격이다. 공공자격이 갖기 어려운 유연성과 신속성을 살려, 현장 중심 교육과 최신 기술 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자격 도입의 의미는 크다.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는 그동안 재난 대응, 스마트 행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다양한 주소정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주소정보 전문인력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이미 존재함을 보여준다. 여기에 주소기반산업협회가 중심이 되어 교육과 자격 운영을 맡는다면,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살린, 실효성 있는 인재 양성이 가능하다.

주소정보 전문 인력 양성 서둘러야

주소정보활용사 민간자격 도입의 기대효과는 분명하다. 공공 부문에서는 주소 오류 감소와 행정 효율성 제고, 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민간부문에서는 물류·유통, 부동산,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시티 등 산업에서 주소기반 데이터 활용 역량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동시에 청년과 중장년층 모두에게 새로운 직무 영역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연계 수단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주소정보는 국가경쟁력의 출발점이다. 주소정보활용사 민간자격 도입은 주소정보를 ‘관리 대상’이 아닌 ‘활용 자산’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는 제도뿐 아니라 이를 실행할 사람에 투자해야 할 때다. AI시대 주소기반 산업의 도약을 위해 주소정보 전문 인력 양성을 서둘러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공직자의 눈으로 본 주소, 그리고 그 너머의 가치

글 공장현 주소기반산업협회 전문위원



우리가 매일 쓰고 마주하는 주소는 너무 익숙해 그 소중함을 잊기 쉽지만, 사실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탱하는 국가의 가장 기초적인 약속이다. 택배를 주고받는 평범한 하루부터 일본일초가 생명을 좌우하는 긴급 구조의 현장까지, 우리 삶의 출발 점에는 언제나 주소가 있다.



우리나라에 도로명주소가 자리 잡기까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으로 만들어진 지번을 100여 년간 주소로 사용해 온 우리나라는 1996년 도로명주소 도입을

결정할 당시 큰 도전에 직면했다. 국민의 낯설, 행정 현장의 부담, 익숙한 것을 버려야 한다는 걱정이 공존했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내비게이션, 스마트 물류, 배달 서비스를 움직이는 심장이 되었고, '길이 보이는 주소'는 국민 편익을 증명하는 강력한 확신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주소는 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생활 인프라다. 주소정보는 또한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건물이 없는 지역의 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 도심 속 사물주소는 재난 현장에서 구조대의 나침반이 되어 골든타임을 지켜낸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에 1초라도 더 빨리 답하고자 했던 행정의 간절한 마음은 이제 정밀한 주소 데이터라는 튼튼한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을 지키는 조용한 힘, 그것이 바로 주소다.

지난 2021년 11월, 주소정보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협회가 첫발을 내디뎠던 순간이 떠오른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협회는 주소정보의 가치를 일깨우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모으며, 행정과 국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 진화하는 주소

이제 주소는 행정 정보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데이터 자산'으로 진화해야 한다. 정부는 자율주행, 드론 배송, 로봇 서비스가 자유롭게 구현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고정밀·입체 주소정보 구축에 힘쓸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회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역할을 기대한다. 첫째,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연결하는 '소통의 가교', 둘째,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며 산업의 가능성을 확장하는 '혁신의 구심점', 셋째, 산업계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켜주는 '상생의 버팀목'이다. 협회가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현장에서 뛰는 기업인도, 정책을 고민하는 공직자도, 그리고 그 혜택을 누리는 국민도 함께 웃을 것이다.

주소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서 국민이 더 안전한 일상을 누리고, 기업이 더 멀리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응원할 것이다. 주소는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연결하며, 우리 곁에서 따뜻하게 숨 쉬는 국가 인프라다. 이번 창간호가 그 길목에서 민관이 함께 내딛는 '희망과 혁신의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디지털 대전환의 새로운 좌표, 주소정보가 여는 미래

글 김도엽 엘티메트릭 주식회사 부사장, 주소기반산업협회 감사



우리가 흔히 접해온 '주소'는 오랫동안 단순히 거주지를 확인하거나 우편물을 주고받는 1차원적인 위치 표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와 AX전환이라는 급변하는 세상에서 주소정보는 이제 단순한 '위치'를 넘어, 사람과 사물, 그리고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디지털 핵심 인프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주소정보의 가치

산업계가 바라보는 주소정보의 활용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첫째, 주소정보는 초연결사회의 '혈관'이다. 지금 산업계는 물류, 모빌리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드로이드나 드론이 아파트 베란다로 물건을 나르고,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빌딩 숲을 지나 사무실 책상까지 커피를 배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혁신 기술이 상용화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바로 '정밀한 주소정보'다. 2차원 평면지도를 넘어 고가도로, 지하철, 건물 내부까지 아우르는 입체적 주소체계는 로봇과 시가 세상을 인식하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산업계는 촘촘하고 정확하게 구축된 주소 데이터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둘째, 주소정보는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는 '마스터키'이다. 디지털 트윈기술에 있어 주소는 데이터를 결합하는 고유식별자(key)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 재난 안전, 교통, 환경 등 도시의 모든 데이터가 주소를 매개로 융합될 때, 비로소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기업들은 이 융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주소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최적의 상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산업생태계 속 컨트롤타워로서의 주소기반산업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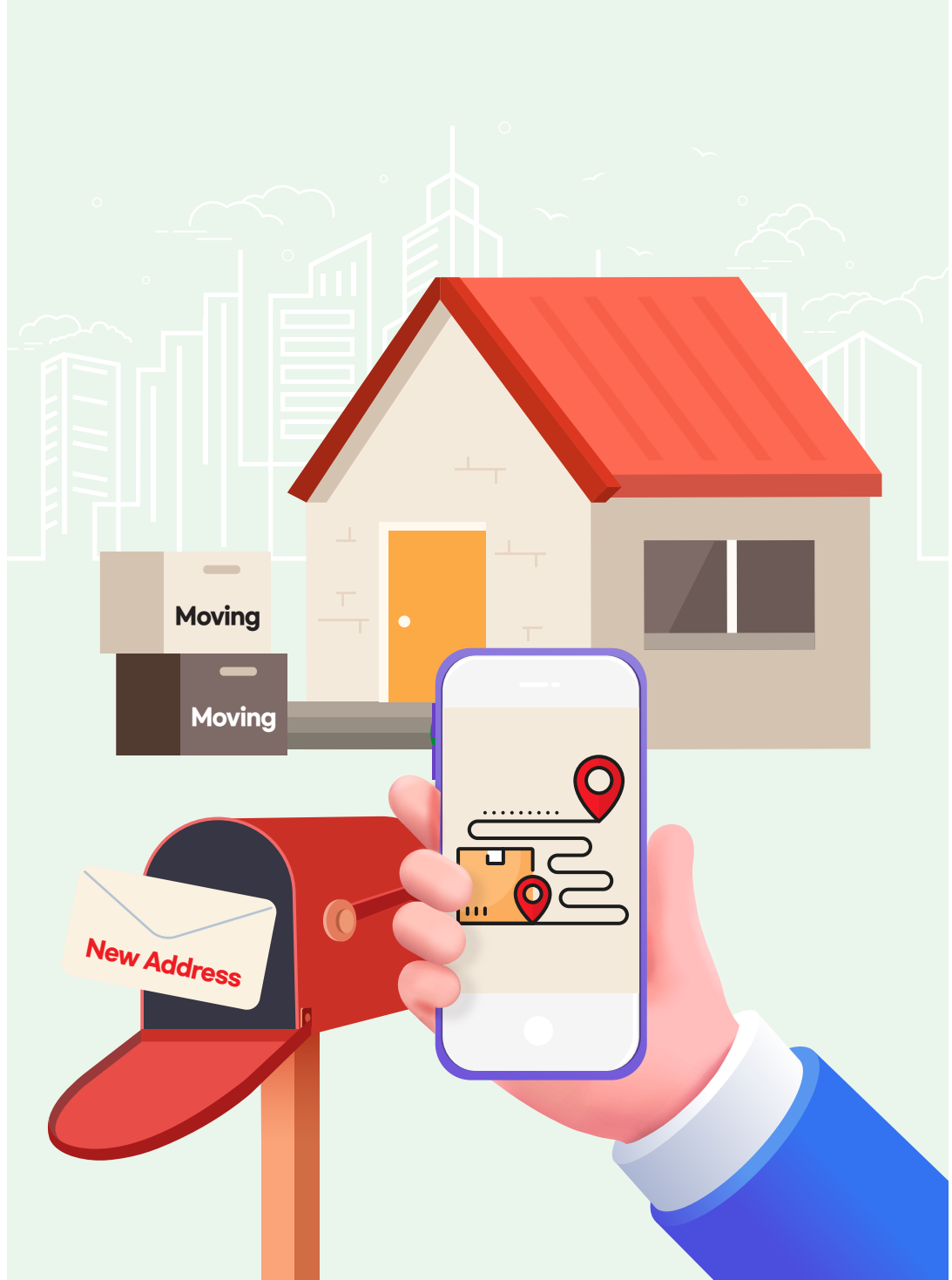
이러한 산업계의 기대 속에서 주소기반산업협회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 협회는 단순한 친목 도모를 넘어 민관협력의 가교(Bridge)이자 산업생태계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한다.

우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기술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혁신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규제 개선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합리적인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양질의 주소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주소정보 산업이 단순히 지도나 내비게이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스마트시티, 메타버스, 프롭테크(Prop-tech) 등 다양한 신산업과 융합할 수 있도록 협회가 적극적인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주소정보 산업은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주소정보 개방 의지와 기업의 혁신 기술, 그리고 이를 잇는 협회의 리더십이 삼박자를 이룰 때, 우리의 주소산업은 'K-주소'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주소산업 시장을 선도할 것이다.

주소 변경을 넘어 생활 인프라로 kt moving과 주소기반 산업의 동반성장

글 홍성원 (주)잠코드 이사



이사(moving)는 삶에 있어 행정을 비롯해 금융, 통신,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소 등 정보의 변경을 발생하게 하는 대표적인 생활 이벤트이다. 주소는 단순한 위치 정보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 서비스를 연결하는 핵심 데이터로서 주소기반 산업의 근간을 이룬다.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

주소가 이사 및 부서 이동 등으로 인해 변경되었을 때 회원 가입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금융, 통신, 유통 등 거래하는 여러 기업에 변경된 정보를 무료로 통보 대행해 주는 대국민 생활 편의서비스가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www.ktmoving.com)'이다.

2000년부터 대국민 무료서비스로 시작한 kt moving 주소연락처 일괄변경서비스를 통해 국민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잘못 배송된 우편물로 인해 노출될 수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고객 정보를 신속하게 현행화할 수 있어 고객 정보 관리 비용 절감 및 마케팅·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주소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기업의 신뢰와 거래 안정성에 있어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는 디지털전환(DX) 시대의 필수적인 생활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이울러 행정안전부, 우정사업본부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2014년 시행된 도로명주소의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들로 인해 대국민 생활 편의 무료서비스로의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길

향후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는 먼저, 전입신고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국민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동시에 금융, 통신, 유통 등 민간기업에 주소 등 데이터가 동기화되는 앞선 행정서비스로 진화되어야 한다. 둘째, '이사(moving)'라는 삶의 큰 이벤트의 일부인 주소 변경은 단순한 정보의 수정을 넘어 새로운 지역의 생활 정보, 맞춤형 혜택, 지역 밀착 서비스 등을 안내해 주는 이사 전과 후 서비스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할 것이다. 다만, 이를 뒷받침해 줄 공공과 민간 간의 연계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는 향후 kt moving 서비스를 비롯한 주소기반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



무료인가요?

주소 연락처 변경 비용은 무료입니다.



KT고객이 아닌데요?

통신사 상관없이, 회원 가입없이, 본인인증만 하면 누구나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변경 신청 접수 1주일 이내로 처리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집 말고 회사도 되나요?

집 주소와 회사 주소를 선택하여 변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소기반산업협회는 공공과 민간, 산업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서 주소기반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협력 생태계 조성을 이끌어야 한다. 협회와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편의는 물론 주소기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kt moving 주소연락처일괄변경서비스'는 홈페이지(www.ktmoving.com), 이동통신사(KT, SKT, LGU+) PASS앱, 주소정보누리집(www.juso.go.kr), 우정사업본부, KT 고객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소기반 재난·안전 긴급출동 서비스가 보여준 현장과 주소산업의 미래

글 김경목 별따러가자 공동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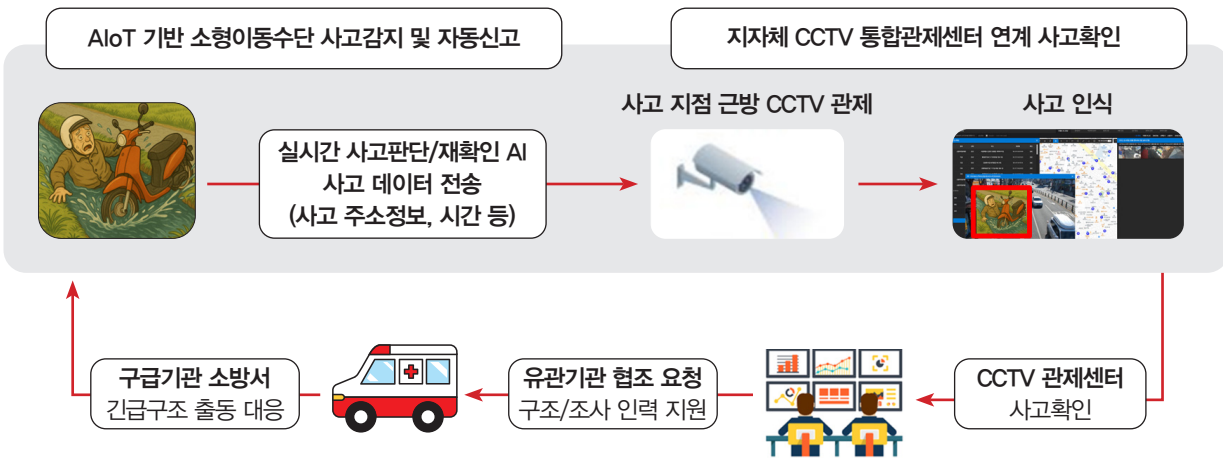
주소는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정보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절체절명의 순간, 그 당연한 주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의식을 잃었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 혹은 낯선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주소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주소는 분명 존재하지만, 가장 위급한 순간에는 작동하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주소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순간들

주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생겨나는 위험은 이륜차, 전동보장구, 농기계 등 소형 모빌리티 이용자들에게 더 치명적이다. 운전자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 충격에 취약한 데다 주 이용층인 고령자가 많은 농어촌 지역은 인적이 드물어 사고 목격조차 어렵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목소리는 이 냉혹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이 먹으면 사고 났을 때 오토바이를 일으킬 힘도, 떨어진 핸드폰을 주울 정신도 없어.”, “밤에 물고 보러 나갔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몇 시간 동안 발견되지 않았던 이웃도 있었지.” 결국 사고 후의 생사는 ‘주소를 아느냐’가 아니라, ‘주소가 자동으로 연결되느냐’에 달려 있다.

주소의 한계를 극복한 솔루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별따러가자’는 AI와 IoT 기술을 활용해 사고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신고하는 ‘주소기반 긴급출동 솔루션’을 개발했다. 정밀 모션센서가 사고 충격을 감지하면, 운전자가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시가 정확한 사고 위치(주소)를 구조기관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주소와 기술이 결합해 비로소 구조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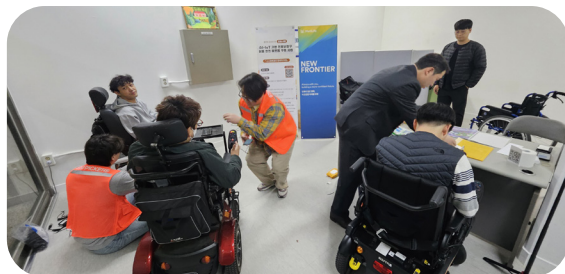


실제 성과도 증명되었다. 충남 예산군에서는 2023년 11월 서비스 도입 이후 농수로 추락, 저혈당 쇼크 등 긴급 상황에서 10명의 생명을 구해내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울에서도 전동보장구 사고 시 가족과 구조대에 즉시 위치가 전송되어 신속한 구조가 이뤄졌으며, 국내 최초로 안전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 모델까지 개발되었다. 이처럼 주소기반 기술은 농어촌의 고령자부터 도심의 이동 약자까지 아우르는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로 수출되는 한국의 주소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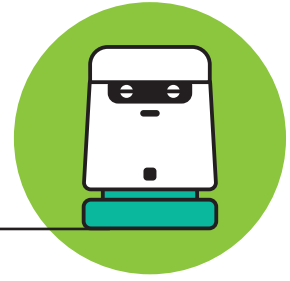
한국의 실증 사례는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국제교통포럼(ITF)에 소개되고 인도네시아 수출이 논의되는 등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주소 서비스가 단순한 공공 서비스를 넘어 해외로 수출 가능한 유망 기반산업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도약의 시기에 주소가 행정 정보를 넘어 재난·안전·모빌리티를 잇는 핵심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주소기반산업협회가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검증된 기술이 표준화된 제도와 생태계로 정착되고, 나아가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민관을 잇는 협회의 주도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제 주소산업은 지도 위의 정적인 정보에 머무르지 않는다. 위급한 순간 주소가 제대로 작동될 때 구조는 빨라지고 생명은 지켜진다. 현장에서 검증된 한국의 주소기반 안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주소산업이 국민 안전을 떠맡는 핵심 기반산업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K-주소, 모빌리티 서비스의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인프라

글 조영만 (주)에바 이사



2026년 새해, 우리 앞의 이동 패러다임은 이제 ‘수단’을 넘어 ‘서비스’로 급격히 축을 옮기고 있다. 과거의 모빌리티가 특정 목적지로 향하는 하드웨어적 효율성과 속도에 집중했다면 미래의 모빌리티는 정밀한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필요한 서비스가 사용자에게 직접 찾아오는 ‘지능형 공간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는 디지털 시대의 가장 정교한 좌표계인 ‘K-주소’가 있다.

주소정보, 위치 안내를 넘어 핵심 산업 인프라로

오랫동안 주소는 단순한 행정 관리와 위치 안내를 위한 공공재의 영역에 머물러 왔다. 하지만 이제 주소는 자율주행, 배송로봇, 도심항공교통(UAM) 등 고도화된 모빌리티 산업과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 인프라’로 재정의되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구축 중인 풍부한 주소 데이터 개방 체계는 민간의 창의적인 신산업 모델을 육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된다. 특히 서비스의 정밀도가 생명인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표준화된 주소 데이터는 실내외 경계를 허물고 서비스 영역을 무한히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한다.

‘라스트 미터’의 한계를 극복하는 입체적 K-주소

모빌리티 서비스가 직면한 가장 큰 숙제는 복잡한 도심 속에서 목적지의 마지막 한 점(Point), 즉 ‘라스트 미터(Last-meter)’까지 끊김 없이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의 평면적 주소 체계로는 건물의 주차장 입구, 대형 복합시설 내부나 미로 같은 지하 공간에서 특정 서비스를 정확히 매칭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 간극을 완벽히 메우는 것이 바로 입체·실내주소 기술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기기가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장애물을 피해 이동하기 위해서는 통로, 중간 정보, 심지어 주차장의 개별 주차칸 하나하나에 부여된 정밀 데이터가 필수적이다. 이제 주소는 단순한 명칭을 넘어 모빌리티가 구동되기 위한 가장 정교한 ‘디지털 지도’이자 기기 간의 ‘공통 언어’로 가능하게 되었다.

사물주소와 에바(EVAR)가 증명한 ‘찾아오는 모빌리티 혁신’

시설물과 특정 장소에 부여되는 사물주소는 모빌리티 서비스의 실제적인 혁신을 이끄는 실효성 있는 도구다. 전기차 충전 솔루션 전문 기업 에바(EVAR)의 사례는 주소정보와 모빌리티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를 명확히 보여준다.

에바(EVAR)는 사단법인 주소기반산업협회와 협력하여 ‘2025년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 주소기반 자율주행 전기차 충전로봇 인프라 스마트 실증사업’을 승인받았다. 이를 통해 경기도 성남시에서 20개월간 자율주행 충전로봇 서비스의 실무적인 실증 기회를 마련했다.

에바(EVAR)는 ‘충전기가 자동차로 찾아가는’ 혁신적인 이동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주차 구역별 사물주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광활한 주차장에서 각 주차 칸에 부여된 고유한 사물주소 체계 도입을 통해 충전 로봇은 오차 없이 서비스 대상 차량을 찾아가고 이용자는 스마트폰 호출만으로 최적화된 충전 경험을 누린다. 이는 주소정보가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을 어디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증명하는 모빌리티 청사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표준을 향한 디지털 신경망의 완성

주소기반의 지능형 서비스가 정착됨에 따라 기업들은 국가 주소 체계와 연동된 정밀한 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성장을 넘어 로봇, 드론, 전기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기기들이 표준화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지능형 생태계’의 탄생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구축해 온 촘촘하고 입체적인 주소 인프라는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주소정보라는 디지털 신경망 위에서 펼쳐질 모빌리티 혁신은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

일상과 비즈니스를 연결하는 주소정보 활용법

글 편집부



주소기반산업협회는 누구나 주소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소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상의 편의부터 기업의 혁신까지, 주소정보 활용의 효과적인 방안을 살펴본다.

숨은 보물을 찾아서, 아름다운길

juso.go.kr/ahi/ahiBgGalleryBoardList Q

주소정보의 활용은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문화와 관광 분야로도 확장된다. 아름다운길 서비스는 한국 곳곳의 명소를 도로명주소와 함께 소개하며,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게 하는 콘텐츠 플랫폼이다. 주소라는 실용적 정보와 지역의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결합함으로써, 단순한 위치 안내를 넘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를 전하는 문화 아카이브 역할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혁신의 출발점, 주소기반 산업지원서비스

business.juso.go.kr Q

주소기반 산업지원서비스는 주소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이다. 이 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주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발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주소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업자는 주소정보 다운로드, 데이터 연계, API 연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배달 앱, 부동산 플랫폼, 물류 시스템 등 위치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들은 이를 통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주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며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위한 필수 서류, 주소동일성영문증명서

juso.go.kr/ahh/ahhEngAddrIdentity Q

국제 무역과 해외 거래가 일상화된 오늘날, 수출기업들에게는 국내 주소 체계를 해외에서 입증할 수 있는 공식 문서가 필수적이다. 주소동일성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바로 이런 필요를 충족시킨다. 이 서비스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의 관계를 영문으로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공하며, 수출기업을 비롯해 국외에서 이러한 증명이 필요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해외 송금, 부동산 거래, 법인 설립 등 국제적인 업무 처리 시 한국의 주소 체계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 글로벌 비즈니스의 행정적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안전을 지키는 보이지 않는 주소, 사물주소

business.juso.go.kr/jsu/jsuAddressThing Q

사물주소는 전통적인 주소 부여가 어려운 시설물에 도로명과 기초 번호를 활용해 부여한 주소로, 안전과 편의를 위한 스마트한 해법이다. 육교승강기, 둔치주차장,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졸음쉼터 등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지만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던 시설물에 고유한 주소를 부여함으로써,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도 이러한 정보가 반영되어 안내 체계가 한층 정교해졌다.

발행일 2026년 3월 25일

발행인 나종민

발행처 (사)주소기반산업협회

주 소 08512 서울특별시 금천구 디지털로9길 68, 1403호(가산동)

전 화 02-2624-3080

팩 스 02-2624-3081

홈페이지 <https://www.address.or.kr>

디자인·제작 (주)이앤디컴 02-2633-3707

※ 본지에 실린 기사는 (사)주소기반산업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지에 실린 기사와 사진, 그림 등은 무단으로 복제, 전재할 수 없습니다.



낮선 여행지에서 집으로 향하는 안도감을 주는 것도,
기다리던 선물이 문 앞에 놓이는 설렘을 주는 것도
결국 그 작은 주소 덕분이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주소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누군가와 만나고,
또 사랑하며 채워져 갑니다.



「주소」 2호 원고모집 안내

협회는 소식지 게재를 위한 원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아래의 연락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메일 kaba@address.or.kr 전화 02-2624-3079

(사)주소기반산업협회가 발행하는
디지털세상과 현실세상을 연결하는
주소정보 매거진 「주소」

